

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많기도 많은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 중에서 눈길 끄는 인물 하나가 프로메테우스이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다고 설정된 인물-프로메테우스. 불멸인 신들의 전 유물이던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니. 살아있는 동안 내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조만간 죽고마는 인간 군상을 떠올려보라. 그 이듬처럼 ‘앞서 생각하며’, 한 세계의 틀을 과감히 깨고 나서서 또 하나의 세계를 밝혀 열어주는 한 인물 덕분에 인간의 문명 세계가 비롯되었다는 생각은, 문명의 어느 단계에서 돌아보든, 참으로 매력적인 우화일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그 많은 신화의 인물들 중 프로메테우스가 괴테의 관심도 유별나게 끌었던 것 같다. 괴테는 한 평생을 두고 네 차례나 작품화를 시도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괴테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캐릭터에서 눈 여겨 본 것은-그저 불을 가져다 주는 시체가가 아니라-무엇보다 기존의 질서를 깨는 반항아, 그리고 그저 저항에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 진흙에서 인간을 빚어 또 하나의 세계의 창조주가 되는 프로메테우스이다. 창조적 인간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

첫 시도이자 대표적인 작품은, 괴테 자신뿐만 아니라 독일 문학의 필경노도가 대표 시라 부를 수 있는 청년기 시 ‘프로메테우스’ (1770-1774경 집필, 1789년

내가 짓는 세계 -괴테의 프로메테우스에 대하여

출판)이고, 다음 작품화 시도는 이 시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미완성 드라마, 단편(斷片) ‘프로메테우스’ (1773년 집필, 1774년 초연)이다.

역시 미완성 드라마인 ‘판도라’ (1807-1808년경 집필, 1810년 출판)에서도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아우에 피메테우스와 더불어 중심인물이다. 네 번째 시도, 오랫동안 집필 계획에 들어 있었던 드라마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끝내 쓰이지 못했다.

완성된 첫 시 ‘프로메테우스’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남고 그 핵심이, 실패하거나 미완성인 작품들에도 녹아 있다. “너의 하늘은 뿔오라, 제우스여/ 구름 안개로!// 그리고 영경위/ 목을 똑똑 따는 소년처럼/ 참나무와 산 언덕과 겨우어 보라!// 하지만 내 땅은/ 그대 로 두라/ 네가 지어주지 않은/ 내 오무막도 그대로 두라.”라는 당당한 청산으로 시작되어진 시는 선언으로 끝난다. “나 여기 앉아/ 내 모습에 따라 인간을 빚노니// 이 족속 나를 닮아/ 괴로워하고 울고/ 즐기고 기뻐하고 / 그리고 너를 아랑곳하지 않으리/ 나처럼.”

일반화된 신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운명’이다. 즉 인간은 시간에 매여 유한하고 필멸인 존재이고, 신은 운명을 벗어난, 즉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 모든 신화의 근본 구도이다. 넘지 못할 선이 ‘시간’으로 확실하게 그어져 있다. 그 분수를 잊고 인간이 신과 동

급인양 오만(휘브리스)을 저지를 때 온갖 징벌과 불행이 초래된다는 것이 신화의 핵심 도덕율이다.

그런데 청년 괴테에게서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질서에 속하면서 경계를 넘는다. 신들도 ‘운명’이 있다고, 즉 시간에 종속된다고 단언하는가하면, 나아가, 자기도 인간을 만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반항에 그치지 않고 창조자가 되는데, 이 점에 괴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2막인 미완성 드라마 ‘프로메테우스’의 첫 막은 시 ‘프로메테우스’를 산문 대사로 펼쳐 놓은 듯, 창조적인 반항아 프로메테우스를 그리고, 둘째 막은그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아버지처럼 나타나는 너그러운 창조주의 모습을 담는다.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창조된 첫 인간들 가운데서 소유와 폭력이 생겨나며, 그들이 차츰 히로에락을 알아가는 과정도 그려진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투성이인 세상에서 그대도 내가 뭔가를 빚어본다는 건 얼마나 마음을 끄는 일인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물며 그것이 생명일 때, 더구나 사람일 때, 한 세계일 때… 그래서 생각하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보잘 것 없지만, 하나의 작은 세계를 짓는 일이면 좋겠다고.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의료칼럼



김진수
조선대학교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

“치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라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다. 충치나 치주질환, 턱관절 문제나 치근 손상은 물론이고 교정 치료나 임플란트 시술 전 방사선 촬영은 필수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이라는 단어에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실제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은 국제적 안전 기준과 국내 법적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며, 환자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치과의 주요 영상 장비로는 구내 방사선 촬영기, 파노라마 촬영기, 그리고 콘빔CT(CBCT)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X선을 이용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병변이나 해부학적 이상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진단 도구다. 예컨대 잇몸 속 치근 염증이나 치조골의 결손 부위, 매복된 사랑니의 방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의료 방사선’은 이러한 X선 기반의 진단 기법을 지칭하며 전산화단층촬영(CT), 양

전자단층촬영(PET) 등도 포함된다.

의료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핵심에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있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방사선량으로 필요한 진단 정보를 얻자는 의미이다. 치과에서는 단순히 선명한 영상을 목표로 하기보다 진단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촬영만을 시행한다. 지나친 반복 촬영은 지양되며 방사선량, 촬영 횟수, 각도 조절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고려해 영상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방사선 방어복과 갑상선 보호대는 실제로 신체 주요 기관을 방사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보호 장비다. 어린이나 임신부처럼 방사선에 민감한 환자에게는 대체 진단 방법을 먼저 고려하거나 가능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취한다.

치과 방사선 장비는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성능과 안전성을 검사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8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으로 방사선 장비의 설치, 검사,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장비는 설치 전·후 검사와 3년마다 정기 검사를 거쳐야 하며 방사선 출력, 영상 품질, 전기 안전성까지 점검하고 있다.

검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장비는 즉시 사용이 중단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치과 진료실에서 방사선 관

리 체계는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법적 안전망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의료 방사선을 사용하는 치과 의료진은 방사선의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영향, 법적 책임 등 방사선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정기적으로 교육받는다. 또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여 분기마다 자신이 받은 누적 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준 이상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업무 환경을 조정하거나 정밀 건강 검진을 받기도 한다. 만약 선량계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고 대체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방사선 검사는 단순한 촬영이 아니다.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애 환자에게 검사의 목적, 방식, 대체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치과에서는 검사 전 설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상태가 민감한 경우에는 대체 진단법을 활용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선택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촬영할 때 기계가 ‘빔’ 소리를 내는 그 몇 초 동안 의료진의 판단, 촬영 조건의 조정, 장비의 안전 여부, 환자의 보호 상태 확인,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른 운송 절차 등 많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의료 방사선은 단지 질병을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주는 정교한 의료 체계의 일부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과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하고 있다.

재난이 일상이 된 여름, 적십자의 역할

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봉사원을 대상으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응소 훈련과 함께 이재민 발생 시 빠르게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쉼터 설치 및 해체 훈련을 진행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며 지난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있다. 200여 개의 구조 세트, 쉼터 75동, 빵과 초코파이, 컵라면, 생수와 간편식을 이재민 대피소에 지원했다. 비가 잦아들고 난 후 지역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위해 적십자 직원 및 봉사원은 복구 활동에 나섰다.

광주·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심리활동가들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피해 지역 곳곳을 찾아가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펼쳤다. 적십자 봉사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침수된 주택을 찾아가 함께 폐가물을 꺼내고 흉터물로 얼룩진 바닥을 닦아냈다. 적십자사의 이동세탁 차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 동부권으로 향했고 빗물에 젖어버린 이불과 옷가지를 깨끗하게 세탁하며 마음을 아루만졌다.

급식 차량과 화북지원 차량은 침수된 농경지 복구 활동에 나선 군 병영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든든한 식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폭우 이후 이어진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손을 보탠 봉사자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모두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 연고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기업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에 구호품과 후원금을 보내며 이재민 지원에 함께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해 복구에 힘써달라 마음을 보태는 시민들도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정성과 관심은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일으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재난은 더욱 자주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적십자사는 생명 보호에 앞장서는 구호 전문 기관으로서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을 넘어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이 혹서기·혹한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은 단지 구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는 지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기후 위기 속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며 일상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겠다.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고 마지막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의 곁을 지키는 것이 적십자의 역할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

社說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공원도시 광주’ 완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을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국가도시 공원은 도시에 있는 공원 가운데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2016년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곳이 없어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면 적기준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돼 광주시가 1호 타이틀 획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서구 금호동·풍암동·화정동과 남구 주월동 일대에 걸친 중앙근린공원은 면적이 280여만㎡ 인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말이면 모든 부지의 소유권이 광주시로 넘어 와 인천·부산·대구 등 경쟁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간까지 품고 있어 역사·문화 유산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산책

코스로 유명한 풍암호수공원 등 시민 활용성이 높은 점도 강점이다.

도시 공원은 폭염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시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파트 공화국인 광주는 ‘광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됐다. 광주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도시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광주시는 물론 시민들도 중앙근린공원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공원도시 광주’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혼밥 면박·겉레 수건’에 관광 여수 위상 흔들

연간 방문객 1000만명 달성으로 한때 국내 관광지 선호도 1위를 차지했던 여수의 관광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식당과 숙박업소의 서비스 불량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관광도시 여수 이미지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 교통의 요령 음식점은 혼밥을 하라는 여행 유튜브가 2인분을 시켰는데도 ‘빨리 먹으라’고 면박을 줘 비난을 샀고 돌산의 한 리조트형 호텔은 투숙객에게 ‘겉레 수건’을 제공했다가 전국적인 망신을 샀다. 이 호텔의 1박 요금은 40만원 이라는데 겉레라고 쓰인 수건을 주고도 제때 교체를 해주지 않고 뒤늦게 사과해 대처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요즘 개고 맨 이수지의 펜션 갑질 패러디가 화제라고 한다. 펜션에 가서보니 서비스는 형편 없는데 사용하는 것마다 추가 요금을 받아 국내 여행 전반에 비교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최근 여수를 대표하는 맛

집과 리조트의 서비스 불량은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벌써부터 여수를 패싱하지는 SNS 글도 올라온다고 한다. 내년 9월 세계 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 입장에서든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수는 유흥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여수산단이 침체되면서 골목상권이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 관광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사람이나 한 곳의 잘못이 전체 이미지를 흐려 치명타를 주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과 위생, 손님 응대 등에 대한 차별 대책을 마련하고 점점에 나섰다고 한다.

자치단체의 계도도 중요하지만 업자들의 서비스 개선 의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어렵더라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보고 서비스를 하는 자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無等鼓

초년기자 시절 ‘아름다운 화장실 혐의 회’라는 단계를 취재한 적이 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는 캠페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컨셉이 신선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곳은 수원시였다. 수원시는 화성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관광유산에 등록되고 2002년 월드컵 경기 개최지로 확정되면 서 체계적인 화장실 가꾸기에 나섰다.

당시 찾았던 수원 광고유원지 화장실은 외관부터가 기존의 공중화장실과는 달랐다. 지금은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파우더통과 광고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투명유리창도 인상적이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여기 화장실 만나며 취재하던 나에게 묻던 기억이 난다.

‘화장실’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빔 벤더스 감독의 ‘파펙트 데이즈’다. 주인공은 도쿄의 공중화장실 청소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료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시부야구의 화장실을 순회하며 청소하고 잠들기 전 고다야아의 ‘나무’를 읽는다. 영화는 반복적인 일상을 무심히 보여주는데, 이 영화로 칸느영화제 남우

주연상을 받은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화장실이다. 주인공이 다음엔 어떤 화장실을 청소할까 궁금해지고, “이게 화장실 맞아?”라는 느낌의 범상치 않은 화장실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2020 도쿄올림픽을 맞아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로 지어진 17개 화장실은 안도 다오무 비롯해 프리츠커상 수상자 등 16명의 건축가가 설계했고 ‘화장실 순례’ 프로그램까지 운영중이다.

광주에서도 화장실이 화제가 됐다. 국립공원주 등산 토끼등에 만들어진 화장실이다. 관웨슨 등 을 이유로 등산객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광주시장까지 등판해 재설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논란은 화장실이 기능적인 공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공공건축물이 그렇다. 단순히 목적에 맞는 기능적인 역할 뿐 아니라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해야한다. 사람들이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 것. 화장실 논란이 가져다준 교훈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